

# 2009년도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오 승 현 \*

## 논문초록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의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적 규모로 금융·경기 위축이 2009년도에 진행된 바, 이런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2009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실시된 확장적 신용보증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신용보증 수혜 기업(567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다음 세 가지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첫째, 2008년과 2009년의 상황에 대한 응답의 비율 비교분석, 둘째, 2008년과 2009년 응답 비율의 동일성에 대한 가설검정, 셋째, 2008년과 2009년 응답의 차이가 유의한지에 대한 쌍체비교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의 기업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시중은행, 특수은행, 농협 및 수협 등이 주요 자금조달 창구라는 응답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친인척을 통한 개인적 자금이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응답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는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 대출금 중 신용보증서 대출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38%(2008년)에서 50%(2009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경영개선 항목에 대한 신용보증 기여도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핵심주제어 : 신용보증,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융위기

JEL Classification : G32, G38

\*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e-mail : ohsh@swu.ac.kr)

### 1. 서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안정성이 낮은 반면, 부가가치율·설비투자효율·노동소득분배율 등 생산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징은 [표1]에서 제시된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지표 추이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고용, 부가가치 점유율 등 측면에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실질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표 1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영지표 비교

(단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중소기업	36.5	36.5	37.6	37.7	39.6	40.8	39.86	39.13
		대기업	33.2	43.7	46.8	52.2	53.7	53.9	52.97	47.29
	부채비율	중소기업	173.7	173.7	166.2	165.1	152.5	145.4	150.86	155.57
수익성	차입금 의존도	중소기업	31.8	35.0	35.6	34.4	34.1	34.3	36.31	36.54
		대기업	42.0	31.2	25.9	20.4	19.1	18.1	18.17	20.40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중소기업	2.72	3.38	3.17	3.42	3.60	3.57	3.58	3.26
생산성	금융비용대 매출액 비율	중소기업	2.57	2.09	1.91	1.85	1.70	1.73	2.03	2.16
		대기업	4.98	2.95	1.90	1.19	1.03	1.05	1.00	1.00
	차입금 평균이자율	중소기업	9.83	7.15	6.37	6.61	5.96	5.95	6.27	6.61
안정성	부가가치율	중소기업	25.90	25.40	25.59	25.20	25.78	24.50	25.52	23.55
		대기업	18.28	22.29	22.00	24.39	22.03	20.98	21.93	19.94
	설비투자 효율	중소기업	75.08	72.40	73.97	76.08	76.37	73.04	73.27	66.05
수익성	노동소득 분배율	중소기업	63.84	63.49	65.25	64.50	62.92	62.80	62.82	58.50
		대기업	46.11	39.70	40.43	34.95	37.62	39.35	54.01	51.45

자료) 한국은행(2009), 중소기업중앙회(2009), 한국중소기업학회(2009)를 기준으로 작성

주) 중소기업은 5~299인 중소제조업 기준

금융비용대 매출액 비율 = 금융비용 /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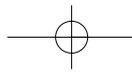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차입금평균이자율 = 금융비용 / 차입금(회사채+장·단기차입금)

부가가치 = 경상이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매출액) × 100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 / 부가가치) × 100

설비투자효율 = (부가가치 / [유형자산 - 건설중인 자산])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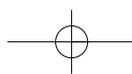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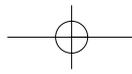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대다수의 국내 중소기업은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증권 발행을 통한 투자자금의 직접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으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반적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잠재력이 사장됨으로써 국민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장은 ‘자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seller’s market)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은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관행화된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적금·보험 및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등 일명 ‘찍기’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이상의 추가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1998년과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사건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금융위기 및 ‘신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협약’(바젤 II)의 영향으로 은행들은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량 대기업 위주의 대출이나 단기운전자금 중심의 대출 행태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은행들의 단기 및 대기업 위주의 대출 행태가 강화됨에 따라 위험은 크지만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위축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은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공개하는 재무정보의 양적·질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은행 등과 같은 자금 공급자가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경제적 최적수준보다 작아지는 ‘시장실패’(financial market failure)가 초래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공적기관의 신용보증 제공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즉, 정보 비대칭성 및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의해서 금융접근이 제한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적수준의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과 같은 정책적 금융지원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편, 공적기관의 신용보증 지원은 기업의 자생적 경쟁과 혁신 인센티브를 저하시키는 역기능도 내포하고 있다. 신용보증 지원시 적절한 심사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신용보증 지원이 불필요한 기업도 공적 신용보증의 혜택을 누리려는 free-riding 동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적인 신용보증기관 역시 일정수준의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이 불필요한 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려는 유인에 노출된다. 공적 기관이 과도하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경우 이상에서 언급된 역기능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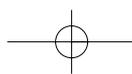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신용보증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해진다.

공적인 신용보증 지원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및 민간금융시장 접근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9월부터 가시화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의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도 1년간 전 세계적 규모로 금융 및 경기 위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경기위축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규모 역시 2009년도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다행히 2010년 12월 현재 금융위기의 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2009년도에 실시된 신용보증 확대 정책의 성과는 면밀히 검토 및 분석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향후에 유사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09년도의 정책적 경험과 성과는 매우 유용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동기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실시된 확장적 신용보증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신용보증 수혜 기업(567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정성적·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시된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신용보증 수혜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수혜기업의 자금사정, 대출조건,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이용 만족도 등 금융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경영성과, 자금사정, 자금조달 접근성, 고용상황 등의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차이 및 개선도를 조사한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2009년도에 실시된 확장적 신용보증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2. 설문조사 방법 및 표본 구성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고, 2010년 7월 7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 조사되었다. 설문항목은 총 20개 항목으로서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사항으로 구분된다. 첫째, 자금사정 및 금융시장 접근성, 둘째,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이용도, 셋째,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의 성과, 넷째,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만족도 및 개선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대상기업은 2009년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신규 또는 증액 받은 567개 중소기업이다. 다음 [표2], [표3], [표4]는 표본의 구성을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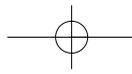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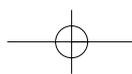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표 2 총자산 기준 표본의 구성

구 분	2008년		2009년	
평균 (백만원)	3,088		3,639	
중간값 (백만원)	1,150		1,524	
최대값 (백만원)	191,209		233,882	
표준편차 (백만원)	9,352		10,944	
금액별 (원)	기업체 수	비중	기업체 수	비중
10억 미만	260	45.86%	187	32.98%
10억~30억	175	30.86%	214	37.74%
30억~50억	59	10.41%	72	12.70%
50억~70억	27	4.76%	30	5.29%
70억~100억	18	3.17%	34	6.00%
100억~200억	16	2.82%	16	2.82%
200억 이상	12	2.12%	14	2.47%
합 계	567	100%	567	100%

표 3 매출액 기준 표본의 구성

구 분	2008년		2009년	
평균 (백만원)	6,489		7,431	
중간값 (백만원)	2,975		3,625	
최대값 (백만원)	161,747		146,152	
표준편차 (백만원)	12,592		13,111	
금액별 (원)	기업체 수	비중	기업체 수	비중
10억 미만	80	14.11%	45	7.94%
10억~30억	205	36.16%	188	33.16%
30억~50억	102	17.99%	113	19.93%
50억~70억	56	9.88%	62	10.93%
70억~100억	47	8.29%	57	10.05%
100억~200억	44	7.76%	60	10.58%
200억 이상	33	5.82%	42	7.41%
합 계	567	100%	56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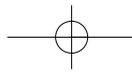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표 4 2009년 보증금액 기준 표본의 구성

구 분	신규 보증		증액 보증		신규 및 증액 보증	
평균 (원)	305,042,193		272,896,752		381,033,402	
중간값 (원)	190,000,000		225,000,000		200,000,000	
최대값 (원)	3,000,000,000		8,462,500,000		8,462,500,000	
금액별 (원)	기업체 수	비중	기업체 수	비중	기업체 수	비중
0.5억 미만	16	7.96%	15	3.89%	28	4.94%
0.5억~1억	38	18.91%	73	18.91%	107	18.87%
1억~2억	51	25.37%	81	20.98%	126	22.22%
2억~5억	70	34.83%	132	34.20%	198	34.92%
5억~10억	14	6.97%	49	12.69%	61	10.76%
10억 이상	12	5.97%	36	9.33%	47	8.29%
합 계	201	100%	386	100%	567	100%

### 3. 설문조사 분석방법론

본 연구는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상황에 대한 응답 비율 분포의 동일성에 대한 가설검정과 응답 비율의 동일성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이때, 가설검정을 위해 사용된 각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N_8$  = 2008년의 총 응답 수

$N_9$  = 2009년의 총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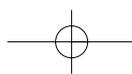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k$  = 설문 선택 항목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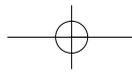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X_{i,8}$  = 2008년의 응답 중 항목  $i$ 가 선택된 횟수,  $i=1...k$

$X_{i,9}$  = 2009년의 응답 중 항목  $i$ 가 선택된 횟수,  $i=1...k$

$\widehat{P}_{i,8}$  = 2008년의 총 응답 중 항목  $i$ 가 선택된 비율 =  $\frac{X_{i,8}}{N_8}$ ,  $i=1...k$

$\widehat{P}_{i,9}$  = 2009년의 총 응답 중 항목  $i$ 가 선택된 비율 =  $\frac{X_{i,9}}{N_9}$ ,  $i=1...k$





$$\hat{P}_i = \text{총 응답 중 항목 } i \text{가 선택된 비율} = \frac{X_{i,8} + X_{i,9}}{N_8 + N_9}, i = 1 \dots k$$

$$E_{i,8} = \text{2008년의 응답 중 항목 } i \text{의 기대뒀수} = N_8 \times \hat{P}_i, i = 1 \dots k$$

$$E_{i,9} = \text{2009년의 응답 중 항목 } i \text{의 기대뒀수} = N_9 \times \hat{P}_i, i = 1 \dots k$$

응답 비율 분포의 동일성에 대한 가설검정의 귀무가설과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 귀무가설 : 2008년 응답 중  $i$ 의 비율 = 2009년 응답 중  $i$ 의 비율,  $i = 1 \dots k$
- 검정통계량 : 
$$x^2 = \sum_{j=8}^9 \sum_{i=1}^k \frac{(X_{ij} - E_{ij})^2}{E_{i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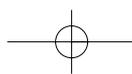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상황에 대한 설문  $i$ 에 대한 각각의 응답 비율( $P_{i,8}$ ,  $P_{i,9}$ )의 동일성에 대한 가설검정의 귀무가설과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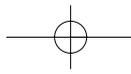
- 귀무가설 :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상황은 변화가 없음 ( $P_{i,8} = P_{i,9} = P_i$ )

- 검정통계량 
$$Z = \frac{\hat{P}_{i,9} - \hat{P}_{i,8}}{\sqrt{\hat{P}_i(1 - \hat{P}_i) \left( \frac{1}{N_8} + \frac{1}{N_9} \right)}}$$

검정통계량  $Z$ 는 2008년도 상황에 대한 응답과 2009년도 상황에 대한 응답이 서로 독립이고, 표본의 크기  $N_8$ 과  $N_9$ 가 크고, 귀무가설이 옳다면 근사적으로 표준정규분포한다.

한편, 선택 항목간의 크기 비교가 가능한 설문에서는 2008년도 선택과 2009년도 선택 사이의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쌍체비교를 통한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즉, 각 응답기업의 2009년도 선택 번호에서 2008년도 선택 번호를 차감하여 구해진 값을 관측치로 하여  $t$  검정을 실시한다.





## 4. 분석결과

### (1) 기업경영의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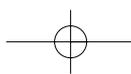
기업경영의 장애 요인을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확보, 판로개척,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한 후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경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서 전체 선택의 약 44% 수준이었다. 기업경영 장애 요인의 전반적 선택 순위와 비율은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순위는 자금조달(44.83%, 44.52%), 인력확보(21.91%, 22.37%), 판로개척(21.58%, 20.93%), 기술개발(7.12%, 7.64%), 기타(4.56%, 4.54%)이다. 비중 동일성 가설검정에서도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경영애로 요인 각각의 비율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였다. [표-5]는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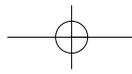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표 5 경영 장애 요인 비교

항 목	2008년		2009년		비중 동일성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Z	p-value
자금조달	403	44.83%	402	44.52%	-0.13206	55.25%
인력확보	197	21.91%	202	22.37%	0.23343	40.77%
판로개척	194	21.58%	189	20.93%	-0.33687	63.19%
기술개발	64	7.12%	69	7.64%	0.42390	33.58%
기 타	41	4.56%	41	4.54%	-0.02057	50.82%
합 계	899	100%	903	100%		

### (2) 기업의 자금사정

기업의 자금사정을 “① 매우곤란, ② 다소곤란, ③ 보통, ④ 다소원활, ⑤ 매우원활”의 5가지로 구분한 후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도(2008년도) 기업 자금사정 현황은 ‘보통’ 과 ‘다소곤란’ 이 각각 41.59% (44.96%), 30.27%(31.50%) 순서로 다수를 점하였다. ‘매우곤란’, ‘다소곤란’ 항목은 2008년도에 각각 7.43%, 31.50%에





서 2009년도에 5.84%, 30.27%로 소폭 감소하였다. ‘다소원활’, ‘매우원활’ 항목은 2008년도에 각각 13.63%, 2.48%서 2009년도에 19.29%, 3.01%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자금사정이 호전된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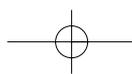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자금사정에 대한 비중 동일성 가설검정에서 ‘다소원활’ 항목에서는 2008년도와 2009년도 비율이 동일하다는 가설이 유의하게 기각되었다. 비중 동일성 가설검정의 결과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의 기업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다는 추론을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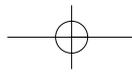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자금사정은 항목간 비교가 가능하므로 쌍체 비교를 통해서 추가적인 가설검정을 실시하여 결론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한다. 각 응답기업의 2009년도 선택 번호에서 2008년도 선택 번호를 차감한 값을 관측치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한다. 쌍체비교 검정에서 t값은 2.815로서 1% 유의수준에서 2008년과 2009년의 자금사정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비중 동일성 가설검정의 결과와 부합하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의 기업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다는 추론을 지지한다. [표6]은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6 자금사정 비교

항 목	2008년		2009년		비중 동일성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Z	p-value
① 매우곤란	42	7.43%	33	5.84%	-1.075	28.22%
② 다소곤란	178	31.50%	171	30.27%	-0.450	65.22%
③ 보 통	254	44.96%	235	41.59%	-1.140	25.40%
④ 다소원활	77	13.63%	109	19.29%	2.567**	1.02%
⑤ 매우원활	14	2.48%	17	3.01%	0.546	58.48%
합 계	565	100%	565	100%		
선택된 항목 번호의 평균	2.722		2.833		t(쌍체비교)	p-value
					2.815***	0.50%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p-value는 단측검정값임)





### (3)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① 기업자체 자금, ②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③ 저축은행 및 지역은행, ④ 투자자 모집, ⑤ 개인적 자금, ⑥기타”의 6가지로 구분한 후 최대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에 대해서 신용보증 이용 이전과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대해서 각각 실시하여 자금조달 창구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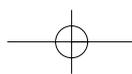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신용보증지원을 기준으로 자금조달 수단에 두 가지 유의한 변화가 관찰된다. 첫째는 시중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및 농협, 수협 등이 주요 자금조달 창구라는 응답이 신용보증 이용 이전에는 36.81%에서 신용보증 이용 이후에는 54.30%로 증가했고,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둘째는 친인척을 통한 개인적 자금이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응답이 신용보증 이용 이전에는 23.57%에서 신용보증 이용 이후에는 5.89%로 감소하였고, 이 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에서는 신용보증 이용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7]에 요약된 이상의 결과는 은행 대출에 접근하기 어려워 친인척 등의 개인적 자금조달 수단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창구를 은행으로 정상화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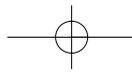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표 7 자금조달 수단의 변화 : 신용보증 시점 기준

항 목	신용보증 이용 이전		신용보증 이용 이후		비중 동일성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Z	p-value
시중은행, 특수은행	328	36.81%	461	54.30%	7.324***	0.00%
기업 자체 자금	298	33.45%	290	34.16%	0.313	75.36%
개인적 자금	210	23.57%	50	5.89%	-10.340***	0.00%
기 타	33	3.70%	27	3.18%	-0.598	54.98%
저축은행, 지역은행	14	1.57%	14	1.65%	0.128	89.76%
투자자 모집	8	0.90%	7	0.82%	-0.165	86.86%
합 계	891	100%	849	100%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008년과 2009년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에는 두 가지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첫째는 친인척을 통한 개인적 자금이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응답이 2008년에는 13.84%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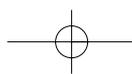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서 2009년에는 7.60%로 감소하였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인정된다. 둘째는 증권발행을 포함한 투자자 모집이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응답이 2008년에는 0.46%에서 2009년에는 1.38%로 증가하였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인정된다. 그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8]에 요약된 이상의 결과는 2009년에 시행된 완화된 통화정책 및 신용보증 확대정책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직접 금융 접근성이 2008년도 보다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표 8 자금조달 수단의 변화 : 2008, 2009년도 기준

항 목	2008년		2009년		비중 동일성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Z	p-value
시중은행, 특수은행	419	48.33%	453	52.19%	1.608	10.78%
기업 자체 자금	279	32.18%	296	34.10%	0.850	39.52%
개인 적 자 금	120	13.84%	66	7.60%	-4.198***	0.00%
기 타	28	3.23%	29	3.34%	0.130	89.64%
저축은행, 지역은행	17	1.96%	12	1.38%	-0.939	34.74%
투 자 자 모 집	4	0.46%	12	1.38%	2.006**	4.48%
합 계	867	100%	868	100%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설문에 응답한 567개 기업 중 201개 기업이 2009년에 신규로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었음을 감안하면 본 결과는 신용보증 이용의 효과와 2009년도의 금융완화 효과가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09년에 시행된 완화된 통화정책 및 신용보증 확대정책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직간접 금융 접근성이 2008년도 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을 더욱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9년에 신규로 보증을 이용한 201개 기업의 응답을 제외한 상태에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9]는 2009년에 신규로 보증을 이용한 201개 기업의 응답을 제외한 상태에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인데, 신규 신용보증의 효과를 제외하여도 2009년도의 금융완화 및 신용보증 확장 정책의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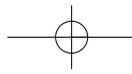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표 9 자금조달 수단의 변화 : 2009년도 신규보증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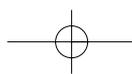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항 목	2008년		2009년		비중 동일성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Z	p-value
시중은행, 특수은행	127	41.78%	154	50.49%	2.157**	3.10%
기업 자체 자금	109	35.86%	106	34.75%	-0.284	77.62%
개인 적 자 금	56	18.42%	30	9.84%	-3.041***	0.24%
기 타	7	2.30%	8	2.62%	0.255	79.88%
저축은행, 지역은행	2	0.66%	3	0.98%	0.445	65.60%
투 자 자 모 집	3	0.99%	4	1.31%	0.375	70.70%
합 계	304	100%	305	100%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4)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경험한 문제점

자금조달시 경험한 문제점을 “과도한 담보 요구, 까다로운 대출심사, 불합리한 대출한도, 필요시 차입곤란, 꺾기 관행”의 5 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후 각 문제의 심각성을 “① 문제되지 않음, ② 다소 심각함, ③ 심각함, ④ 상당히 심각함, ⑤ 매우 심각함”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에 대해서 각 항목 별로 2008년 대비 2009년도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쌍체비교를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즉, 각 문제점에 대해서 개별 응답기업의 2009년도 선택 번호에서 2008년도 선택 번호를 차감하여 구해진 값을 관측치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불합리한 대출한도’의 경우 기업이 경험하는 심각성 정도의 평균은 2.333(2008년), 2.310(2009년) 수준으로서 이는 ‘다소 심각함’과 ‘심각함’의 사이를 의미한다. ‘불합리한 대출한도’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심각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불합리한 대출한도 이외의 문제점들에서 2008년 대비 2009년의 심각성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에 자금조달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쌍체비교 검정에 의하면 불합리한 대출한도 이외의 다른 문제점들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표10]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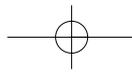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표 10 자금조달 관련 문제의 심각성 검정 : 2008 대비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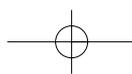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항 목	2008년		2009년		쌍체비교 검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필요시 차입곤란	2.518	1.235	2.465	1.233	-1.949**	2.59%
불합리한 대출한도	2.333	1.182	2.310	1.185	-0.955	16.98%
과도한 담보 요구	2.360	1.186	2.307	1.186	-2.018**	2.20%
까다로운 대출심사	2.328	1.162	2.282	1.162	-2.048**	2.05%
꺾 기 관 행	2.096	1.255	2.041	1.235	-2.239**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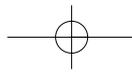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주) 1. 5점 척도 기준

2.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신용보증 이용의 주된 이유를 “① 물적 담보나 신용대출 여력이 없어서, ② 신용대출 여력은 있으나 금리 등이 유리하여, ③ 신용대출 여력은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④ 신용대출 여력은 있으나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에는 부족해서, ⑤ 물적 담보는 있으나 담보제공을 원치 않아서, ⑥ 신용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 장기 차입이 불가능해서”의 6 가지로 구분한 후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설문을 2008년과 2009년에 대해서 각각 실시하여 신용보증 이용의 이유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2008년 대비 2009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된 내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물적 담보나 신용대출 여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45.58%(2008년)에서 40.71%(2009년)로 감소하였는데, 이 결과의 유의수준은 약 10.9%이었다. ‘신용대출 여력은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응답은 17.47%(2008년)에서 21.24%(2009년)로 증가하였는데, 이 결과의 유의수준은 약 12.1%(양측검정 기준)이었다. 신용보증 이용의 가장 주된 이유는 ‘물적 담보나 신용대출 여력이 없어서’로서 전체 응답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과 2009년의 신용보증 이용의 이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11]은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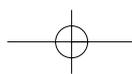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표 11** 신용보증 이용의 주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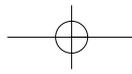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항 목 <sup>1)</sup>	2008년		2009년		비중 동일성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Z	p-value
①	227	45.58%	230	40.71%	-1.601	10.92%
③	87	17.47%	120	21.24%	1.548	12.14%
④	87	17.47%	103	18.23%	0.322	74.68%
②	61	12.25%	73	12.92%	0.329	74.20%
⑥	22	4.42%	23	4.07%	-0.280	77.92%
⑤	14	2.81%	16	2.83%	0.020	93.38%
합 계	498 <sup>2)</sup>	100%	565	100%		

- 주) 1. ① 물적 담보나 신용대출 여력이 없어서  
 ② 신용대출 여력은 있으나 금리 등이 유리하여  
 ③ 신용대출 여력은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④ 신용대출 여력은 있으나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에는 부족해서  
 ⑤ 물적 담보는 있으나 담보제공을 원치 않아서  
 ⑥ 신용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 장기차입이 불가능해서
2. 2008년도 신용보증 이용 실적이 없는 기업 67개를 2008년도 표본에서 제외함

**(6) 사업자금 대출금 중 신용보증서 대출의 비중**

사업자금 대출금 중 신용보증서 대출의 비중을 10% 단위로 구분하여 2008년과 2009년의 비중 변화를 조사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신용보증서 대출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42.7%(2008년)에서 50.5%(2009년)으로 증가하였다. 신용보증 대출의 비중이 낮은 구간(20% 이하)에 속한 기업의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신용보증 대출의 비중이 높은 구간(60~70%, 80% 이상)에 속한 기업의 비중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2009년의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12]는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12** 사업자금 대출금 중 신용보증서 대출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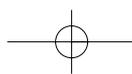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항 목	2008년		2009년		비중 동일성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Z	p-value
10% 미만	87	17.47%	41	7.26%	-5.106***	0.00%
10%~20%	66	13.25%	56	9.91%	-1.706**	8.80%
20%~30%	81	16.27%	102	18.05%	0.771	44.10%
30%~40%	33	6.63%	54	9.56%	1.740**	8.20%
40%~50%	78	15.66%	84	14.87%	-0.360	71.88%
50%~60%	30	6.02%	43	7.61%	1.021	30.74%
60%~70%	24	4.82%	46	8.14%	2.179**	2.94%
70%~80%	45	9.04%	48	8.50%	-0.311	75.56%
80%~90%	18	3.61%	34	6.02%	1.813**	6.98%
90%~100%	36	7.23%	57	10.09%	1.647**	1.00%
합 계	498		565			
신용보증 대출비중의 평균	42.71%		5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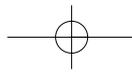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7) 신용보증 혜택으로 부터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을 최초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조달시 이러한 정책적 신용보증 혜택으로 부터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① 1~2년, ② 3~5년, ③ 6~10년, ④ 10년 초과, ⑤ 자립불가”의 5 가지로 구분한 후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6~10년을 선택한 비중이 40.35%로 가장 높았고, 3~5년을 선택한 비중이 38.23%로 차순위를 기록하였다. 설문의 결과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 들은 자금조달의 자립을 위해서 3~10년 정도의 지속적인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측 하고 있다.

기업의 특성별로 자립 필요기간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9년 총자산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표본을 4개의 하위 표본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 표본에서의 비중을 조사하였다. 모든 하위 집단에서 자립 필요기간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총자산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집단에서 3~5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10억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6~10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매출액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집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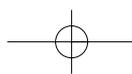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3~5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50억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6~10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적으로 자립 필요기간이 짧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13A] 와 [표13B]는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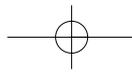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표 13A** 신용보증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간: 최초 보증 시점 기준

자립 기간 2009년 총자산		1-2년	3-5년	6-10년	10년 초과	자립 불가	합 계	비율분포 동일성검정
기업 수 비중(%)	10억 미만	7 3.74%	97 51.87%	65 34.76%	16 8.56%	2 1.07%	187 100%	$\chi^2$ 53.478
	10억~50억	7 2.46%	97 34.04%	131 45.96%	34 11.93%	16 5.61%	285 100%	p-value 0.00%
	50억~100억	1 1.59%	15 23.81%	23 36.51%	17 26.98%	7 11.11%	63 100%	
	100억 초과	2 6.67%	7 23.33%	9 30.00%	9 30.00%	3 10.00%	30 100%	
	전 체	17 3.01%	216 38.23%	228 40.35%	76 13.45%	28 4.96%	565 100%	

**표 13B** 신용보증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간: 최초 보증 시점 기준

자립 기간 2009년 매출액		1-2년	3-5년	6-10년	10년 초과	자립 불가	합 계	비율분포 동일성검정
기업 수 비중(%)	10억 미만	3 6.82%	20 45.45%	17 38.64%	4 9.09%	0 0.00%	44 100%	$\chi^2$ 40.99
	10억~50억	8 2.66%	132 43.85%	122 40.53%	28 9.30%	11 3.65%	301 100%	p-value 0.00%
	50억~100억	3 2.52%	40 33.61%	52 43.70%	15 12.61%	9 7.56%	119 100%	
	100억 초과	3 2.97%	24 23.76%	37 36.63%	29 28.71%	8 7.92%	101 100%	
	전 체	17 3.01%	216 38.23%	228 40.35%	76 13.45%	28 4.96%	565 100%	





**(8) 대출조건별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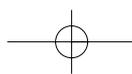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에 의해서 기업의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 기업의 신용보증서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시 약정 금리를 조사하였다. 신용보증서 대출은 담보 대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0.66%p 금리 절감 효과가 있고, 신용 대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41%p 금리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대출조건별 대출금리

대출조건		신용보증서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응답 기업 수		555	450	479
평균 금리		5.68%	6.34%	8.09%
금리의 표준편차		1.34	1.57	1.91
금리 스프레드	담보 대출	0.66%	0	-
	신용 대출	2.41%	1.75%	0

**(9) 신용보증 이용의 긍정적 효과**

신용보증 이용의 긍정적 효과를 “① 담보문제 해결, ② 저렴한 금융비용, ③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④ 꺾기 감소, ⑤ 장기자금 활용성”의 5가지로 구분한 후 2008년도와 2009년도 각각에 대해서 최대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신용보증 이용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는 담보문제 해결로서 전체 선택의 36.13%(2008년), 33.73%(2009년) 수준이었다. 신용보증 이용의 긍정적 효과로서 ‘꺾기 감소’를 선택한 비율은 1.34%(2008년), 1.57%(2009년)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신용보증 이용시 꺾기 관행은 별로 감소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용보증 이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순위와 비율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담보문제 해결(36.13%, 33.73%),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24.05%, 23.75%), 장기자금 활용성(22.37%, 22.64%), 저렴한 금융비용(16.11%, 18.30%), 꺾기 감소(1.34%, 1.57%)이다. 비중 동일성 가설검정에서도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신용보증 이용의 긍정적 효과 각각의 비율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였다. [표15]는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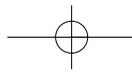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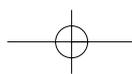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표 15 신용보증 이용의 긍정적 효과

항 목	2008년		2009년		비중 동일성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Z	p-value
담 보 문 제 해 결	323	36.13%	365	33.73%	-1.112	13.29%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215	24.05%	257	23.75%	-0.154	43.88%
장 기 자 금 활 용 성	200	22.37%	245	22.64%	0.144	44.27%
저 령 한 금 융 비 용	144	16.11%	198	18.30%	1.282	9.99%
겪 기 감 소	12	1.34%	17	1.57%	0.421	33.68%
합 계	894	100%	1,082	100%	$\chi^2$	p-value
					2.375	66.71%

(10) 신용보증서 대출의 주요 사용처

신용보증서 대출의 주요 사용처를 “① 단기유동성 충당, ② 차입금 상환, ③ 원부자재 구입, ④ 설비투자, ⑤ 기술개발투자, ⑥ 인건비, ⑦ 기타”의 7가지로 구분한 후 2008년도와 2009년도 각각에 대해서 최대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신용보증서 대출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3대 항목은 원부자재 구입, 단기 유동성 충당, 설비투자 순서이다. 2009년의 순위는 2008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순서대로 나열하면 원부자재 구입(35.30%, 35.32%), 단기유동성 충당(32.92%, 29.45%), 설비투자(16.80%, 16.78%), 기술 개발투자(6.58%, 8.20%), 인건비(3.97%, 4.10%), 기타(3.18%, 3.45%), 차입금 상환(1.25%, 2.70%)이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신용보증서 대출 사용처 비중 분포의 동일성 가설검정에서  $\chi^2$  통계량의 값은 8.693으로서 동일분포 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별 비중의 동일성 검정에 의하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신용보증서 대출 사용처 비중은 두 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단기유동성 충당’이 32.92%(2008년)에서 29.45%(2009년)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둘째는 ‘차입금 상환’이 1.25%(2008년)에서 2.70%(2009년)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 [표16]는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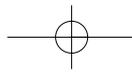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표 16 신용보증서 대출의 주요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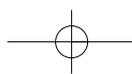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항 목	2008년		2009년		비중 동일성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Z	p-value
원부자재 구입	311	35.30%	379	35.32%	0.009	49.62%
단기유동성 총당	290	32.92%	316	29.45%	-1.648*	4.96%
설 비 투 자	148	16.80%	180	16.78%	-0.013	49.44%
기술 개발 투자	58	6.58%	88	8.20%	1.353	8.80%
인 건 비	35	3.97%	44	4.10%	0.142	44.32%
기 타	28	3.18%	37	3.45%	0.331	37.02%
차 입 금 상 환	11	1.25%	29	2.70%	2.258**	1.20%
합 계	881	100%	1,073	100%	$\chi^2$	p-value
					8.693	19.16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11) 신용보증 이용의 경영개선 기여도

신용보증 이용의 경영개선 효과를 “㉠ 기술습득 및 신기술 개발, ㉡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 금융비용 절감, ㉣ 우수인재 유치”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후, 각 항목에 대한 신용보증 이용의 기여도로서 “① 매우 낮음, ② 다소 낮음, ③ 보통, ④ 다소 높음, ⑤ 매우 높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경영개선 항목에 대한 신용보증 이용의 기여도를 2008년과 2009년 사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쌍체비교 검정을 실시한다. 즉, 각 경영개선 항목에 대해서 개별 응답기업의 2009년도 선택 번호에서 2008년도 선택 번호를 차감하여 구해진 값을 관측치로 하여 t 검정을 실시한다.

4가지 경영개선 항목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여도의 평균 점수(2009년 기준)는 5점 척도 기준에서 3점(보통)에서 4점(다소 높음) 사이의 값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신용 보증의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경영개선 항목을 열거하면, 금융비용 절감(1위),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2위), 기술습득 및 신기술 개발(3위), 우수인재 유치(4위)의 순서이다. 신용보증의 경영개선 항목별 기여도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의 기여도가 소폭 하락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쌍체비교 검정을 통해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확인된다. [표17]은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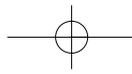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표 17 신용보증 이용의 경영개선 기여도 : 2008 vs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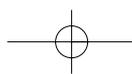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항 목	2008년		2009년		쌍체비교 검정	
	선택 횟수	비 중	선택 횟수	비 중	t	p-value
기술습득 및 신기술 개발	3.771	1.531	3.155	1.084	-10.317***	0.00%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4.116	1.354	3.550	1.019	-10.115***	0.00%
금융비용 절감	4.386	1.139	3.924	0.849	-11.132***	0.00%
우수인재 유치	3.744	1.496	3.071	1.037	-10.95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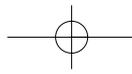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주) 1. 5점 척도 기준  
 2.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12) 2009년도 신용보증 부재시 경영상황에 대한 예상

2009년도 신용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가정할 경우 발생될 경영상황을 “㉠ 고용(상근), ㉡ 고용(일용), ㉢ 연구개발, ㉣ 설비투자, ㉤ 매출, ㉥ 자금조달”의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후, 각 항목의 예상되는 수준을 2009년도의 실제상황과 비교하여 “① 크게 감소, ② 약간 감소, ③ 동일, ④ 약간 증가, ⑤ 크게 증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을 실시한다. 신용보증 부재시 2009년 실적 대비 가장 악화되었을 경영상황 항목은 ‘자금조달’이었다. ‘자금조달’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 점수는 6개 항목 중 가장 낮은 2.301 이었고, 자금조달 항목의 응답 비율 중 가장 높은 34.99%가 ①번(크게 감소)을 선택하였다.

6개 경영상황 항목 모두에 대해서 신용보증 부재시 2009년 경영상황이 실적 대비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이 다수를 점하였다. ‘고용(상근)’ 항목의 경우 악화(‘약간 감소’와 ‘크게 감소’)를 선택한 비율이 41.98%인 반면에 개선(‘약간 증가’와 ‘크게 증가’)를 선택한 비율은 9.70%에 불과하였다. ‘고용(일용)’ 항목의 경우 악화(‘약간 감소’와 ‘크게 감소’)를 선택한 비율이 34.92%인 반면에 개선(‘약간 증가’와 ‘크게 증가’)를 선택한 비율은 9.35%에 불과하였다. ‘연구개발’ 항목의 경우 악화(‘약간 감소’와 ‘크게 감소’)를 선택한 비율이 40.92%인 반면에 개선(‘약간 증가’와 ‘크게 증가’)를 선택한 비율은 9.35%에 불과하였다. ‘설비투자’ 항목의 경우 악화(‘약간 감소’와 ‘크게 감소’)를 선택한 비율이 48.85%인 반면에 개선(‘약간 증가’와 ‘크게 증가’)를 선택한 비율은 12.70%에 불과하였다. ‘매출’ 항목의 경우 악화(‘약간 감소’와 ‘크게 감소’)를 선택한 비율이 61.55%인 반면에 개선(‘약간 증가’와 ‘크게 증가’)를 선택한 비율은 21.69%이다. ‘자금조달’ 항목의 경우 악화(‘약간 감소’와 ‘크게 감소’)를 선택한 비율이 63.84%인 반면에 개선(‘약간 증가’와 ‘크게 증가’)를





선택한 비율은 23.10%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경영자들이 신용보증을 통해서 기업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18]은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18** 2009년도 신용보증 부재시 경영상황 예측 : 2009년 실적 대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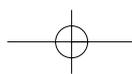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고용(상근)	고용(일용)	연구개발	설비투자	매 출	자금조달
기업 수	① 크게 감소	62	63	92	145	150	195
	② 약간 감소	176	135	140	132	199	167
	③ 동 일	274	316	282	218	95	74
	④ 약간 증가	45	42	41	59	77	101
	⑤ 크게 증가	10	11	12	13	46	30
	합 계	567	567	567	567	567	567
비율	① 크게 감소	10.93%	11.11%	16.23%	25.57%	26.46%	34.39%
	② 약간 감소	31.04%	23.81%	24.69%	23.28%	35.10%	29.45%
	③ 동 일	48.32%	55.73%	49.74%	38.45%	16.75%	13.05%
	④ 약간 증가	7.94%	7.41%	7.23%	10.41%	13.58%	17.81%
	⑤ 크게 증가	1.76%	1.94%	2.12%	2.29%	8.11%	5.29%
	평균 점수	2.585	2.652	2.543	2.405	2.417	2.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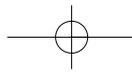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 (13) 2009년도 신용보증 공급 규모의 적절성

2009년도 신용보증 지원 공급 규모의 적절성을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③ 보통, ④ 다소 과도함, ⑤ 매우 과도함”의 5가지로 구분한 후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보통’을 선택한 비중이 60.67%로 가장 높았고, ‘다소 부족함’을 선택한 비중이 28.22%로 차순위를 기록하였다. 설문의 결과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2009년도의 신용보증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는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19** 신용보증 공급 규모의 적절성

평가도	매우 부족	다소 부족	보 통	다소 과도	매우 과도	합 계
기업 수	26	160	344	23	14	567
비 중	4.59%	28.22%	60.67%	4.06%	2.47%	100%





**(14)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① 높은 보증 수수료, ② 짧은 대출기간, ③ 적은 보증한도, ④ 복잡한 지원절차 및 까다로운 심사, ⑤ 지원 정보 시스템 미비, ⑥ 복잡한 사후관리, ⑦ 기타”의 7 가지로 구분한 후 두 가지 이하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적은 보증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28.19%로 가장 높았으며, 대출기간과 보증수수료에 대한 개선 요구의 비중이 각각 19.42%, 18.82% 수준이었다.<sup>1)</sup> 보증 수수료는 기금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 규모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증한도 및 대출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용보증제도 개선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20]은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20** 신용보증 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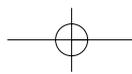
개선 항목	③	②	①	④	⑤	⑥	⑦	합 계
선택 횟수	283	195	189	157	65	60	55	1,004
비 중	28.19%	19.42%	18.82%	15.64%	6.47%	5.98%	5.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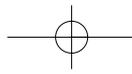
주) ① 높은 보증 수수료, ② 짧은 대출기간, ③ 적은 보증한도, ④ 복잡한 지원 절차 및 까다로운 심사, ⑤ 지원 정보 시스템 미비, ⑥ 복잡한 사후관리, ⑦ 기타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실시된 확장적 신용보증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신용보증 수혜 기업(567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정성적·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세 가지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첫째, 2008년과 2009년의 상황에 대한 응답의 비율 비교분석, 둘째, 2008년과 2009년 응답 비율의 동일성에 대한 가설검정, 셋째, 2008년과 2009년 응답의 차

1) 설문에서 대출기간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응답자들이 금융기관의 대출기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유보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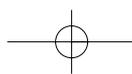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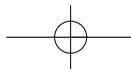


이가 유의한지에 대한 쌍체비교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서 전체 선택의 약 44% 수준이었다. 기업경영 장애요인의 전반적 선택 순위와 비율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서 큰 변화가 없었다. 기업 자금사정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 로 추정되었다. 그 배경으로서는 2009년도에 경기위축의 대응정책으로 시행된 통화정책의 완화와 신용보증정책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에는 신용보증 이용 시 점을 전후하여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은행 접근이 어려워져서 개인적 자금조달 수단에 의 존하던 기업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창구를 은행으로 정상화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2008년에 이미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은행대출이 있었던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9 년의 금융시장 접근도는 더욱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 이용의 가장 주된 이유는 ‘① 물적 담보나 신용대출 여력이 없어서’로서 전체 응답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과 2009년의 신용보증 이용의 이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업자금 대출금 중 신용보증서 대출의 비 중은 평균적으로 38%(2008년)에서 50%(2009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는 2009년의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금조달의 자립을 위해서 3~10년 정도의 지속적인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신용보증서 대출은 담보 대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0.66%p 금리 절감 효과가 있고, 신용 대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41%p 금리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신용보증 이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순위와 비율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신용보증서 대출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3대 항목은 원부자재 구입, 단기 유동성 충당, 설비투자 순서이고, 응답 비율의 2009년 순위는 2008년과 동일하지만, 다음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의 응답 비율은 ‘단 기유동성 충당’에서 감소(32.92% → 29.45%)하고, ‘차입금 상환’에서 증가(1.25% → 2.70%)하였다. 경영개선 항목에 대한 신용보증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과 ‘다소 높음’ 에 집중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의 기여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영상황 항목에 대해서 신용보증 부재시 2009년 실적 대비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이 다수를 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경영자들이 신 용보증을 통해서 기업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2009년도의 신용보증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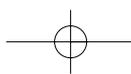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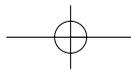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적은 보증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28.19%), 그 다음이 보증수수료에 대한 개선(18.82%)이다.

## 참고문헌

1. 송을호 · 조현영 · 도영호(2009), 「신용보증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ODIT REPORT 2009-3호, 신용보증기금
2. 송을호 · 조현영 · 도영호(2009), 「2008년도 신용보증 성과 및 국민경제기여도 분석」, KODIT REPORT 2009-2호, 신용보증기금
3. 신상훈 · 박정희(2010),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32, No.1
4. 왕성철 · 황인국 · 정낙원(2008), 「2007년 신용보증의 성과 및 국민경제기여도 분석」, KODIT REPORT 2008-2호, 신용보증기금
5. 조경식 · 남기정 · 황인국 · 정낙원(2007), 「국내 보증시장 현황과 최근 동향」, KODIT REPORT 2007-6호, 신용보증기금
6. 중소기업중앙회(2009), 「2009년도 중소기업현황」
7. 한국은행(2009), 「2008년 기업경영분석」
8. 한국중소기업학회(2009), 「중소기업 금융의 시장실패와 정책자금의 보완」, 학술용역보고서





## The Effectiveness of Expanding Credit Guarantee in the Year of 2009

Seung Hyun Oh\*

### Abstract

During the year of 2009 financial and business sectors were contracted in a global scale due to the crisis of sub-prime mortgage in the USA. To fight against the impending recession and financial system risk, the Korean government increased the amount of credit guarantee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for small business companies during the yea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measuring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expanding credit guarantee implemented in the year. To carry out the research,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managers of wide range of small business companies which have been benefited from public credit guarantee in 2009.

When compared to economic situation of 2008, the financing conditions of small business companies are relatively improved in 2009. The proportion of companies which can utilize commercial banks in financing their business i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09 compared to that in 2008. Whereas the proportion of companies which can't access commercial banks in financing business is significantly decreased during 2009. Meanwhile the various potential problems in financing business by way of commercial banks are mitigated in 2009.

- Keywords : credit guarantee, small business companies, financing, financial crisis
- JEL Classification : G32, G38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Women's University (e-mail : ohsh@swu.ac.kr)

